

세계 우수 수산기업과 지속 가능한 수산업 논의

- 조승환 해수부 장관, SeaBOS(Seafood Business for Ocean Stewardship) 연차총회 참석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10월 11일(수)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SeaBOS(Seafood Business for Ocean Stewardship)와 동원산업(주)에서 주최한 ‘SeaBOS 연차총회’에 참석했다.

SeaBOS는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과 해양생태계 개선을 목표로 스웨덴 왕실 후원으로 세계 수산기업과 과학자 간 협력을 활성화하고자 2016년 창립되어 노르웨이, 일본, 태국 등 세계 우수 수산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기업으로는 동원산업(주)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연차총회에서는 ▲기후변화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어업근절 ▲항생제 남용방지 ▲수산업과 과학기술 접목 촉진 등을 위한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정부도 지속 SeaBos와 함께 가능한 해양생태계를 구축하고 미래 세대에 건강한 바다를 물려주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수산업의 디지털 전환 ▲어업·양식 분야 탄소배출 저감 ▲IUU 어업근절 등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수산정책관 원양산업과	책임자	과 장	고경만 (044-200-5360)
		담당자	사무관	양동곤 (044-200-5361)